

10월 31일부터 3일간 '우주최광(光) 김치 파티'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사흘간 시청 일원에서 '제32회 광주김치축제'를 개최해 풍성한 즐길거리로 방문객을 맞는다.

'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한 이번 광주김치축제는 풍요와 안녕에 감사하는 '김치 감사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명장 '안유성소' ▲천인의 밥상 ▲K-김치파티 ▲김치마켓 ▲김치 팝업 및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안유성소'에서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안유성 명장이 광주김치를 사용해 생중계 요리쇼를 선보인다. 명장의 칼·명장의 김치독·명장의 식탁을 주제로 광주김치를 재해석한 요리를 소개하고 관람객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한다.

'천인의 밥상'은 다양한 김치 및 김치 곁들이 요리를 자유롭게 세분·소분해 구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이다.

올해 '천인의 밥상'에는 '묵은지 오일 파스타', '한돈 삼겹 김치짜파', '광주김치찜',

흑백요리사 안유성 명장의 광주김치 재해석한 '생중계 요리쇼'

묵은지파스타·광주김치찜 등 명인 대표 메뉴 50여종 판매

뉴진스 'K-김치파티'·EDM 사물놀이 등 전통·현대 융합 특색

김치마켓전 20~30% 저렴... 역대 대통령상 김치 30여종 전시도

'김치 고기전' 등 명인의 대표 메뉴를 포함한 50여 종의 메뉴가 판매된다.

축제의 핵심 공연은 전통연희와 DJ뉴진스님의 디제잉이 결합한 'K-김치파티' 무대로 꾸며진다.

사물놀이와 사자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EDM 음악과 융합시켜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치마켓'에서는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통시장 김치, 품질인증 김치 등을 시중 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광주김치박물관은 '팔도 김치'를 주제로 한 팝업 전시를 준비했고, 세계김치연구소 등은 올해 수상작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상 수상 김치 30여 종을 전시한다.

이 밖에도 ▲대통령상 김치명인 마스터클래스 ▲김치놀이터 ▲김치체험 ▲청년상인 오프라인 공동판매전 ▲도시농부 축제 ▲전라남도 소금홍보관 ▲소금산업진흥연구소의 천일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등 행사가 펼쳐진다.

주최회 경제창업국장은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과 타 지역 관람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김치 미시벨트 특별코스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10월 29일 0시부터 11월 2일 24시까지 5일간 시청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일대 교통을 통제한다. 시내버스도 우회 운행되므로 사전 교통상황 확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된다.

/전광훈 기자



청소년이 꿈꾸는 잔치 전남 청소년박람회 구름인파 진로콘서트·인문학강의·로봇대회·가족퀴즈대회 등 인기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해 전라남도(도지사 김대중)가 주최하고 (재)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 행복성장협의체가 주관한 2025 전남도 청소년박람회가 25일까지 이틀간 도청 앞 도민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청소년박람회는 '제29회 전남도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청소년이 주축인 청소년기획단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사회 진행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박람회는 '청소년이 만나게! 전남이 반짝이게!'라는 주제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 행사와 주제공연, 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미래생명존, 행복성장존, 진로드림존, 유스센터존 등 4개 주제관을 중심으로 VR, 3D, 로봇, 드론, 대학진로, 해양안전, 목공예 등 총 102개 체험부스가 마련돼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와 도민 모두가 함께 하는 체험의 장으로 꾸며졌다.

25일 박람회 서막을 알린 개막식은 서유찬(영산성지교) 청소년기획단장

의 환영사에 이어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의 격려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축사, 청소년과 주요 내빈이 함께 하는 세리머니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나산실용예술중학교의 취타대 거리 공연을 시작으로 연예인 '윌슈타인' 축하공연,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랩'의 'AI시대 내 꿈을 현실로! 미래 직업을 여는 과학이야기'를 주제로 한 인문학강의, 청소년 동아리 8팀의 댄스·밴드 공연인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이어졌다.

25일엔 청소년 악기 연주, 합창, 사물놀이, 댄스 분야의 문화 공연 행사인 청소년꿈! 발표대회, 로봇을 조종해 미션을 수행하는 로봇대회, MC그리(김동현)의 음악 분야 진로콘서트, 전문 공연 3개 팀의 댄스·밴드 공연인 청소년문화제 등 청소년이 참여해 끼와 재능을 마음껏 선보였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전남가족퀴즈대회'는 가족이 함께 참여해 전남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염선호 기자

북구, 지역 회복력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전국 자치구 1위'

지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수상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결과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회복력 평가'는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을 근거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처음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환경(30점)·경제(30점)·사회(40점) 3개 영역과 10개 부문, 하위 38개 세부 지표를 종합 분석해 '전국 10대 우수 지자체', '영역별 우수 지자체', '강소도시 우수 지자체' 등을 정했다.

북구는 '통합돌봄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 기반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전 분야에서 고

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북구는 총점 67.7점(100점 만점)을 획득하면서 '전국 10대 우수 지자체' 중 3위로 결정됐고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점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탄탄한 복지 인프라

라 보유 등이 북구의 강점으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총 13개의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아시아 미래포럼' 행사와 연계해 열렸으며 북구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북구가 가진 지속 가능성과 위기 대응 능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높은 지역 회복력을 기반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막혔던 많은 주민들이 남구형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특히 소득 양극화와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 여파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증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사업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에서는 위기 가구를 비롯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노량 호루라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노량 호루라기 지원사업은 현행법으로는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법 테두리 밖의 위기가정을

■ 광주 남구, 긴급복지 노량 호루라기 지원사업 봤더니

앞길 막막했던 주민들 '급한 불' 껐다

1~9월까지 4,038건 지원에 37억여원 제공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생계비 지원 가장 많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2가지 사업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긴급복지 및 노량 호루라기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을 지원한 건수는 총 4,038건에 달하며, 이 기간 위기가정에 제공한 지원금만 36억5,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내용별 세부 현황을 보면 경기 침체 영향을 반영하듯 생계 관련 지원 건수

가 2,674건(29억2,400만원)으로, 전체 지원 건수의 66% 가량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비 지원이 275건(5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비 지원은 31건(900만원)이었다. 이밖에 연료비를 비롯해 장례 보조비 등 기타 지원은 1,058건(1억5,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실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긴급복지 및 노량 호루라기 지원사업을 통해 힘겨운 시기를 극복하며 위기 탈출에 나서고

있다.

남편 외도와 가정폭력에 시달린 30대 여성과 어린 자녀들은 긴급 생계급여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껐고, 이후 후로 살고 있는 70대 어르신도 긴급복지와 노량 호루라기 지원을 통해 삶의 희망을 이어나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위기에 처한 가족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긴급복지 지원 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서구, 어르신 올림픽 열린다

28일 빛고을체육관서 '제9회 경로당 놀이대회'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28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제9회 경로당 놀이대회(어르신 올림픽)'를 개최한다.

'경로당 놀이대회'는 '착한도시 서구, 어르신의 삶이 곧 금메달입니다'를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경로당 간 교류와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예선전과 동별 18강전을 통과한 관내 32개 경로당이 참여해 투호·고리던지기·스포츠태권·한궁 등 4개 종목으로 본선 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8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경기 결과에 따라 금·은·동메달을 수여한다.

부대행사도 풍부하다. ▲착한도시 서구 포도존 ▲추억의 커피다방 ▲경품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경로당 라인댄스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식전 공연도 펼쳐진다.

또한 서구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대회 참여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함께 행사장 내 시설 점검, 소화기 비치 등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대회는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공감하는 '착한도시 서구'의 상징적인 행사"라며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응원하며 어르신들의 열정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